

상자 속 미니 디오라마

뒤·가운데·앞 세 겹의 판을 상자 안에 세워 깊이 있는 장면을 만들어요.

① 장면 계획 · 뒤 / 가운데 / 앞에 무엇을 둘까?

뒤

하늘, 먼 산 · 작고 흐리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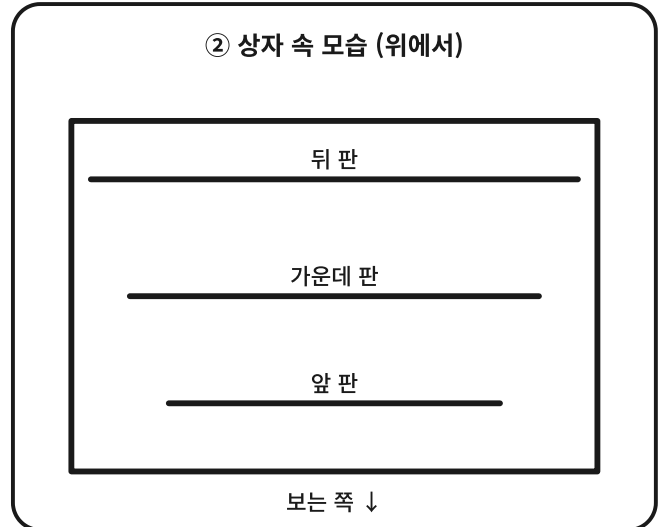
가운데

건물, 나무 · 중간 크기

앞

주인공, 바위 · 크고 진하게

② 상자 속 모습 (위에서)



③ 세워 붙이는 판 · 아래 날개를 접어 바닥에 붙여요



판 높이를 뒤에서 앞으로 갈수록 낮게 하면 깊이가 생겨요

--- 오리는 선 접는 선 ——— 그림 선

발달 포인트

겹침·크기·진하기로 거리를 표현하는 원근 원리, 평면을 세워 공간을 만드는 구성력이 자라요.

다음 단계 신호

판을 더 늘리고 조명을 더하면 스토리션 세트나 전시 작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요.

준비물

- 신발 상자나 작은 택배상자
- 두꺼운 종이
- 가위, 풀, 테이프
- 물감이나 색연필

이렇게 해요

1. 장면 계획 칸에 뒤·가운데·앞을 정해요
2. 판 3장에 그림을 그려 오리고 날개를 접어요
3. 뒤 판부터 상자 바닥에 세워 붙여요

아이에게 물어봐요

“앞 판과 뒤 판 사이가 멀어지면 어떻게 보일까?”

겹치기, 크기, 진하기로 거리를 표현하는 원근의 원리를 손으로 익히는 활동이에요. 지도나 캐릭터 시트의 한 장면을 옮겨도 좋아요.